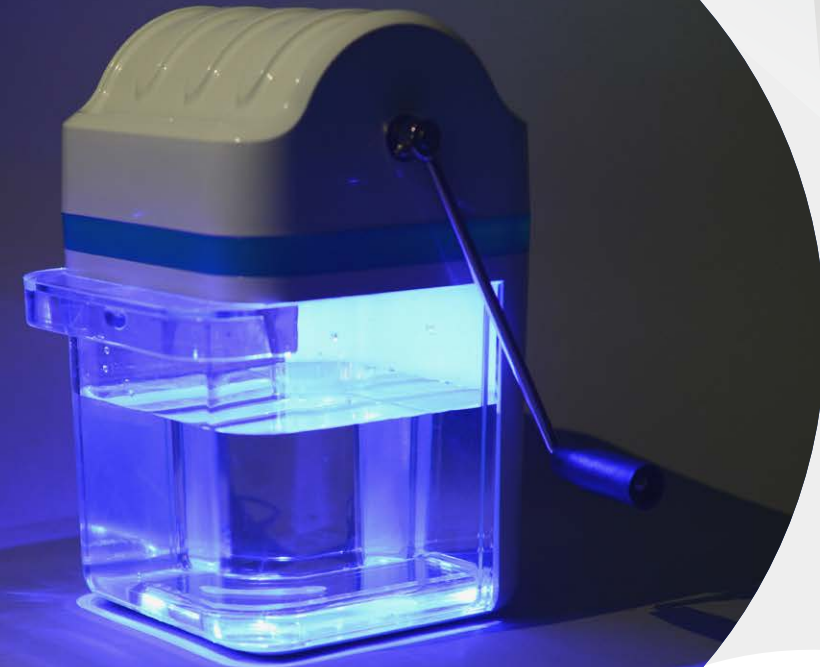




쉐어라이트

2016년도에 설립된 쉐어라이트는 적정기술을 활용하여 전기가 없는 오지마을에 사는 아이들을 위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쉐어라이트는 KOICA(한국국제협력단), KEC(한국에너지공단), 그리고 K-Water(한국수자원공사)와 적극적인 협력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PuriLight™

퓨리라이트

세계최초 수동발전
UVC-LED 물살균기



퓨리라이트란?

퓨리라이트는 수동발전 휴대용 UVC-LED 물살균기로, 오염된 물속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등 유해한 세균을 살균하는 장치이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오지나 재난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 수동발전으로 동작이 가능하게 하였다.

인증과 특허



- 유럽계 CE인증 획득 STD-CE-18160
-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KCL)에서 테스트 진행 및 살균력 인증 확보
- 미국 및 한국 특허 다수 출원 중



UVC-LED는 어떻게 살균하는가?

UVC-LED는 270나노미터(nm)의 극초단파장의 자외선 빛을 내는 장치이다. 이 특별한 자외선(UVC)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의 DNA를 효과적으로 파괴하여 살균함으로 증식을 억제한다. 더불어 다른 살균장치와 달리 빛으로만 작용하므로 부작용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조명모드

- 퓨리라이트는 제품의 물컨테이너를 살짝 꺼내면 살균모드에서 조명모드로 바뀜
- 수동발전 조명의 사용은 위급시에 유용하게 사용 가능
- 외부전원(5V 마이크로 USB 연결)으로 일반조명으로 활용



본체에서 물통을 분리한다.



2리터 표시 라인 이하로 물을 넣는다.
※주의: 육안으로 보기에 투명한 물 사용을 권장한다.



손잡이를 좀 빠르게 돌린다.
※주의: 타이머가 깜박이면 회전 속도를 빠르게 한다.



타이머(2분)가 완료되고 물통의 파란불이 꺼지면 물통을 다시 분리하여 물을 마신다.



물통을 1cm 이상 분리하면 조명이 켜진다.



또는 물통을 완전히 분리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실내 조명 또는 독서 등으로 활용한다.



손잡이를 돌리면 스위치 처럼 조명을 끄고 켤 수 있다.

살균모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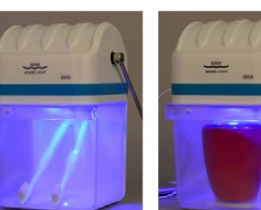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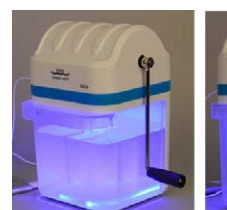
- 제품내 컨테이너 속에 있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로 오염되어 있는 2리터의 물을 2분안에 99.99%이상 살균
- 오염된 물뿐 아니라 개인 위생용품들의 표면 살균용으로도 사용이 가능



전원이 있을 경우 5V USB 전원을 연결하여 사용한다.



타이머는 LED 5개가 순차적으로 켜진다.



물을 포함하여 다양한 개인 위생 용품들을 살균 할 수 있다.
※주의: 빛이 쬔어지는 부분만 살균된다. 용품 살균시 앞면과 뒷면을 모두 살균하기를 권장한다.



제품규격

- ① 모델명 : SLUV-01
- ② 사이즈(mm): 177x172x253H
- ③ 소비 전력(W) : 살균모드 4W, 조명모드 2W
- ④ 입력 전원 : DC 5V ((USB micro 5pin)
- ⑤ 물통 재질 : PC
- ⑥ 본체 재질 : PC, ABS
- ⑥ 무게 : 1.6kg

